

함께 W.i.t.h



Autumn 2010

특집 “나눔, 변화”

우리 안의 나눔 이야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땅끝까지 펼쳐지는 나눔의 꿈

형식에서 본질로



하 이 가 에

Autumn
W.i.t.h



COVER STORY

안과 밖의 세계는

다릅니다.

세상의 눈은

안에서는 안의 눈으로

밖을 봅니다.

밖에서는 밖의 눈으로

안을 봅니다.

우리의 눈은

안에 있지만 밖의 눈으로

밖을 보고,

밖에 있지만 안의 눈으로

안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Contents _ Autumn 2010

· 목양실 러브레터 4

· 특집 “나눔, 변화”

우리 안의 나눔 이야기 8

이렇게 바뀌었어요 15

땅 끝까지 펼쳐지는 나눔의 꿈 22

형식에서 본질로 26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중등부 28

차량관리팀 32

축구동호회 34

아기학교 36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송촌동 40

평화의 마을 43

계족산 숲길을 찾아 46

우리 이웃 이야기 50

동아 주바라기 53



08



43



62



66

함께 3호 _ 가을호

발행일 : 2010년 11월 20일

발행인 : 조상웅

편집장 : 김용수

기자 : 김연경, 배영미, 신신혜, 심재성, 윤여승,

이은영, 조재란, 최정은

발행부서 : 문서홍보팀

디자인 : 김성범, 한미영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 - 622 - 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

· 지금 선교지에서는

몽골 56

· 이단탐구

신천지 60

· 중부 그루터기

나의 삶, 나의 신앙 62

중부 동산에 핀 이야기 꽃 66

가정을 말한다 69

전도, 현장을 찾아서 72

멀리 멀리 갔어도 74

사모의 글 76

청소년이 있는 풍경 78

독자후기 82

내 숨씨 우리 가족 83





당신의 문제는 무엇인가?

글 · 담임목사 조상용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마태복음 11장 28 ~ 30절]

“무거운 짐을 진 인생”

본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이해 하셨습니다. 가지가지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참으로 괴롭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각자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주저 없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씩 자신의 문제들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1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경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단순히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자신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창 3:9-19).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결국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2.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상숭배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자연히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다가 멸망을 자초합니다.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서 우상숭배의 늪에서 빠져 나오십시오.

3. **정신 문제입니다.**

우상숭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아 갑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증 증세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도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현대인들의 정신이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배후의 악한 영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정신을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4. **종교 문제입니다.**

인생의 또 다른 문제는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점을 보고, 굿을 하고, 부적을 붙입니다. 그러나 미신, 제사, 철학, 잡신, 사이비 종교 따위가 절대로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들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종교문제로 고민하셨다면, 이제 방향을 멈추고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께 나와 참 안식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요14:6)

5. **미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또한 자기 운명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쾌락(Pleasure)은 있는데 기쁨(Joy)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삶의 의미나 목적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내세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어디가 아픈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고통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병을 숨기거나 태연한 척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분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막2:17). 이제 당신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바로 지금, 그분을 만나 참 쉼을 얻으십시오. *with*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박용재 시인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항기로운 꽃들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은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울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은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낯타를 사랑한 만큼 산다

발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은 아스라이 걸어가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라



“교회는 이웃을 향하여 함께 나눔을 실천할 때, 아름다운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중생교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의 영원한 비전입니다”

나눔을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나눔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실천적인 것이다.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의 전 인격과 생애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라는 말씀이다. 예수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우리의 나눔을 되돌아 보며, 새로운 도전의 과제를 찾고자 한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실버대학

한글을 배운다. 가가거거부터 시작해서 짧은 글도 지어보고, 편지도 써본다. 숙제도 열심히 해서 선생님에게 동그라미 표시로 칭찬을 받는다. 한자 한자 성경을 읽고 써 본다. 선교원 어린이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 교우와 이웃에서 오신 실버대학 한글반의 모습이다. 한글공부 만이 아니다. 우리 춤을 배우고, 종이접기, 영어, 노래, 장기 등등 인생의 후반부를



실버대학 생일파티



실버대학 한글반

아름답고 보람되게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의 후원과 봉사로 매주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체계화 시켜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다. 그런 안타까움이 2009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것도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웃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이웃 어른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삶을 보람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은 열려 있음을 알려 주었으면 한다.

하나님 품에서 쑥쑥

아기학교 · 중부선교원

엄마와 아기가 하나 되어 따뜻한 정이 넘쳐 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들이 행복과 즐거움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리 교회 교우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삶의 기쁨을 잡아 주려는 이웃의 자녀들도 함께하는 과정이 있다. 전문적인 교사와 봉사자를 중심으로 알찬 과정을 엮어 나가는 아기학교와 중부선교원이다.

“아기학교를 통해서 아기와 엄마가 하나님 품에서 성장하며
인생의 기쁨을 잡는 것이 너무 대견하고 기쁩니다.
프로그램을 더 깊이 있고 다양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서을 전도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 하셨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터전이다. 여기에는 구별과 차별이 없다. 오로지 함께 나눔으로 행복한 이야기만 가득할 뿐이다.



평안과 안식의 숙련

베데스다

대전지역 전역에서 독거생활을 하거나 일정한 거처가 없는 분들,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 편히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고민하시던 분들이 오시는 베

데스다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눅 12:16) 는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삶의 여정을 나누는 곳이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오신 분들의 낮은 곳에서 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향하시리라. 매 주일 오전 10시 50분 지하 믿음의 방에서 드리는 베데스다 예배는 IMF 사태 이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쉼을 찾는 이들의 예배처이다. 정성을 다한 따뜻한 식사와 작은 나눔으로 행복해 지는 우리 교회의 소중한 사랑의 에너지이다.

따뜻하게
맛있는
김장
나누기



김장 나누기 (올해 2000포기의 김장을 담그게 된다)

올해 김장재료 비용이 예년보다 많이 든다고 걱정이 많다. 추석 전후로 배추 한 포기가 만오천 원까지 치솟았을 때, 올해도 김장 나누기를 할 수 있을 지 궁금해서 윤재룡 장로(축복위원회 위원장)에게 올 해 김장 계획을 물은 바 있다. “당연히 김장 담그기 할 것입니다. 김장 비용이 더 들면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들다고 멈추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을 담그고, 맛과 정성이 담긴 김장을 지역에 계신 경로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것이다. 음식은 솜씨보다는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더 맛있듯이, 올해 담그는 김장도 가을 햇살에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서 벌써부터 아삭한 맛이 허끝에 감도는 것 같다.

돈 벌어 남주는

선교바자회 · 필그림카페

오월이면 주차장이 장터가 된다. 평소 점잖던 선생님이 떡볶이 장사를 하고, 근엄하시던 장로님이 굴비를 판다. 노래자랑에는 감춰져 있던 끼가 발산된다. 지역 이웃이 모두 참여하여 한바탕 어울림의 장터가 되는 선교바자회는, 준비가 힘들고 이틀 동안 어려운 시간을 내어 고단함이 많지만 수익금을 선교지로 보내어 유용한 선교기금이 된다.

대전 최고의 커피 맛을 내는 바리스타들이 자원봉사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봉사하는 필그림 카페의 수익금은 전액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장학금에 쓰여진다.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미소를 짓게 하는 향기가 된다.

필그림 카페의 커피 맛은 어디에 내어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맛이라는 것을 자신한다.





필그림하우스



선교 바자회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장례지원 · 교회시설 개방

살아가면서 가장 준비되지 않은 큰 일이 장례이다. 갑작스런 부음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다. 장례가 있을 때에는 장례위원회에서 경황없고 슬픈 현장을 찾고, 교회 묘지를 통하여 마지막 하관까지 동참하여 유족들에게 큰 의지가 되기도 한다. 멀리 출타하여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기 어려운 이들의 묘지를 관리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교회의 여러 시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는 어디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영상과 음향 시설을 이용, 월드컵 축구경기와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회를 이웃에게 개방하여 함께 응원하기도 하며, 필그림 카페는 교우만이 아니라 이웃한 모든 분들이 전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항상 열려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아주고 있다.





어르신들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 효도여행

매년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남녀 전도회와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하루 여행길이지만 맛있는 음식과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다. 오랜 세월 이 일을 하다 보니 다녀온 곳만도 여러 곳이다. 이날 자원봉사자는 봉사자이면서 손자손녀의 역할을 감당한다. 때로는 재롱을 부리고 때로는 손발이 되어 드린다. 올해는 새만금간척지를 150여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녀왔다.

“좀 더 자주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면 자주 못 해드리는데 것이
마음 한 편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문화행성집사 황병동 집사)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일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회는 이웃을 향하여 함께 나눔을 실천할 때, 아름다운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멋대로 머물지 않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중부교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의 영원한 비전입니다”
(복지네약집사 공중호 집사)

우리가 하는 일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행해지는 나눔을 더 넓게 펼치고, 새로운 비전을 꾸준히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을 정리하고 알리는 것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으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해 본다. *with*



[섬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지리라”

[마태복음 23:11-12]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너희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Change
The great & glorious church
The new leap forward

| 특집_ "나눔, 변화" |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화, 위대하고 영광스런 교회를 향한 새로운 도약

글 · 배영미 기자

1958년 9월 15일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20여명의 성도가 조의선 집사와 이인창 교사를 중심으로 선 화동 사가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대전중부교회의 역사는 시작 되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출발이었지만, 성령 강림의 역사는 초대교회 못지 않았고, 50여 년에 걸쳐 계승된 순수 신앙의 유산은 가양 동산뿐 아니라 열방을 아우를 만한 저력있고 전통 깊은 신앙공동체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우리의 선배들이 반세기 동안 견고히 다지고 다져 물려준 신앙의 주춧돌을 발판으로 우리는 위대하고 영광스런 교회를 꿈꾸며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새 역사를 쓰기 시작 했다.



2009년 전교인의 숙원이던 교육관이 완공 되었고, 청년회의 헌신이 기폭제가 되어 필그림하우스 카페를 오픈 하여 교우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교육관이요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 <함께>에서는 교회 내에 일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과 남은 과제들에 대한 청사진을 소개하고, 교회 시설물들이 지역 사회와 도시를 섬기는 도구로 현재 어떻게 사용 되는 지를 살펴보고,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필그림하우스 순례자, 차, 교제, 나눔... 그리고, 쉼.



이제는 교회의 얼굴이 된 필그림하우스 외부전경. 다소 어둡고 칙칙했던 교회와 동네 어귀를 환히 밝혀주는 조명들이

예쁜 질감의 파벽돌과 어우러져 따뜻하고도 편안한 전원의 운치를 전해준과 동시에 심플한 지붕 라인과 빨간 차양막의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다.



외부의 편안함과 대조되는 파스텔톤의 벽과 원색의 의자들, 그리고 중앙의 두 기둥을 감싼 초록의 나무들이 밝고 경쾌한 청년의 푸르름을 보는 듯 하다.

아직은 교우들이 주 고객이지만, 동네 주민들도 거리낌 없이 편안히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이웃들의 쉼터요 나눔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관

주일에는 교회주일학교,
평일에는 이웃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 교육의 장...

실버대학

인구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실버대학이 교우와 이웃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커리큘럼의 평생교육 과정과 유명 강사의 특강,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 치료 등등...

아기학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아기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다양한 활동이 접목된 유아 교육이 진행 된다. 동시에 성경적 자녀 교육관을 정립하고 양육 할 수 있는 부모를 위한 훈련의 장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매주 목요일 18개월~36개월 유아와 보호자라면 누구나 OK!



초등부



중부선교원

성경적 토대위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전인 교육을 24개월 ~ 7세 어린이 들을 대상으로 평일 8시 ~ 19시 까지 운영 하고 있다.



본당 리모델링

“이번 교회 리모델링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요구되는 신축에 따른 시간적 (5~7년 소요), 경제적 (리모델링 비용 + @) 부담에 대한 가장 실리적인 대안으로 고심 끝에 내린 묘안이었다고 자부 합니다.”



리모델링의 필요성 교회 건물 노후로 인한 전면적 개보수의 문제
교육관 건축 이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재 배치
시각화, 고급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효과적인 전도와 정착의 문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좋은 업체를 만나 적은 비용으로 신축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된 이전 본당의 모습, 지난 30년간 우리 신앙의 요람! 곳곳에 교인들의 손때와 기도의 눈물이 배어 있다. ≍



한층 밝아지고, 온화해 보이는 세련된 모습의 본당전경. 본당의 요소 요소엔 목사님의 목회관과 교회의 비전이 담긴 상징물들이 마치 하나의 설치 미술품처럼 자리잡고 있어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큰 재미있거리다.

원형 천장

강단 위 천장으로 우리교회가 대전과 한국의 중심이 되어 땅끝까지 퍼져 나가는 모습을 원형과 반원의 빗살무늬로 표현하고 있다.





물결무늬 천장 (S 자 천장)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물결치는 모양으로 형상화 했다. 이는 지역사회와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교회의 비전을 잘 보여준다.



갈대로 엮은 바구니 모양의 벽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곳이다. 기존의 기둥들을 가리는 기능 외에, 그 기둥을 역이용해 아기 모세를 보호하고 있던 바구니를 연상시키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혈의 역청을 발라 세상의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중보기도실

우측 바구니 모양의 벽면 너머 준 2층에는 요새와도 같은 비밀 공간이 있다. 중보기도학교 수료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공간으로 선교, 교회, 목사님, 예배, 성도들의 개인적 기도 제목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곳이다.



방송실

최첨단의 음향과 영상 장비가 갖추어진 곳으로, 사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종해서 예배를 돕고 상황을 중계한다.



유아실

유치부 미만의 어린 아기와 부모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작지만 아담한 공간이다.

남은 리모델링 공사

1층

2층 로비확장과 엘리베이터 설치, 1층과 지하 공간의 리모델링이 남아 있다.

확장 될 로비는 전망이 넓게 트인 또 다른 차원의 휴식 공간이 될 것이다.

1층 소예배실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므로 청소년 들에게 적합한 밝은 분위기의 예배실로 바뀔 것이다.

지하

지하 리모델링의 가장 큰 변화는 식당일 것이다.

지금의 식당을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단지 식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 식사, 친교, 파티, 부서 행사 등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다목적실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이후 교회 건물의 활용 방안은?

“리모델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이 자신 있게 교회를 소개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또 초대 되어온 많은 태신자들이 쾌적하고도 평안한 분위기의 교회에 호감을 느끼고 정착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건물이 지역 사회와 도시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효도 잔치를 열고,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유치해서 이웃에게 즐거움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소통 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교회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한 사례들

하나님과 의 소통을 위한 공간! ...이웃과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다!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은 교회 중심주의, 개인구원, 양적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회봉사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몇 년 전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교회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는가 하면, 교회 건축 시 교회 안에 사회적 기능을 담아 다기능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대전 중부교회의 사역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례 1 _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만나 운동하고 노래하며 구원 공동체로서 참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자는 구상으로 세워진 교회다.

농구, 배구, 수영, 헬스, 사우나 등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1,511평의 레포츠 센터와 세미나실,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등이 마련된 1,700여 평의 지하 교육관은 평일에는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체육관과 문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주일과 제한된 시간만 사용 하면서도 건물 이용을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여기고, 교회 건물을 이웃의 것으로 돌리고 필요한 시간만 교회가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사례 2 _ 천안 하늘샘 교회 [이성수 목사]

겉모양은 ‘노아의 방주’를 닮았으나 건물 내부는 체육관이다. 특이한 것은 체육관 출입문 정면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 앞에 언급한 안산 꿈의 교회가 레포츠 센터를 지역 사회에 개방한 사례라면, 하늘샘 교회는 평소엔 체육 문화시설로 사용하다가 예배를 드릴 땐 이동식 의자로 경기장과 공간이 채워져 교회가 되는 다기능적 복합 테마형 교회인 것이다. 예배나 교회 행사 때만 잠시 쓰는 예배당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교회의 모든 공간이 레저, 스포츠, 문화행사, 예배 등 4~5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전면 개방이 되고 있다.

150여 개의 동호회들이 요일, 시간대별로 활용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비어 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 매일 200~300명의 동호회원이 교회를 찾고 있다.



사례 3 _ 부산 거제교회 [옥수석 목사]

주일에 중고등부와 청년 예배실로 사용되는 예찬홀(콘서트홀)이 평일과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식장·공연장·발표회장으로 탈바꿈한다. 교회 예배 공간이 지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나눔의 공간·섬김의 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삶의 예배가 실천되는 것이다. 거제 교회는 교회 시설을 지역사회에 무상대여 하는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감동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지역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문화시설인 비전센터를 건축 중에 있다. *with*



외국인 이주 노동자 결혼식



땅 끝까지 펼쳐지는 나눔의 꿈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사는 선교

글 · 김정배 선교사
(GMS 동남아시아 지역대표)

금년은 중부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지 20년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GMS 총회에서는 중부교회와 김정배 선교사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사는 이방민족과 더불어 삶을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12:1-3) 저희 가족이 선교지로 떠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대전중부교회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를 통해서 선교를 배우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였다. 21세기 아시아 선교를 통해 한 사람의 선교에 중부교회가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



대전중부교회는 미국 북장로교(PCA) 선교부를 통해 선교를 배웠습니다. 중부교회의 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신내리 선교사님(Rev. Alvin Sneller)입니다. 신내리 선교사님은 제가 태어날 무렵 한국에 오셨습니다. 제가 충신신대원을 다닐 때 신내리 선교사님은 이미 한국에서 28년간 선교를 하신 것이지요. 1980년대 중반 김주원 목사님의 건강이 약해지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내리 선교사님은 기꺼이 주일 강단을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매번 “너희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요4:35) 라고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영향을 주신 다른 분은 짐 스타크 선교사님(Mr. Jim Stark)입니다. 짐 스타크 선교사님은 2년간 헌신하여 대전에 있는 세 개의 교회(합동, 통합, 고신)를 섬겼습니다. 각 교회에서 한 쌍의 부부를 제자로 길러내었는데 그 가운데 저희 부부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단기 선교팀(SIMA)을 보내왔습니다. 미국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삶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중부교회가 세 개의 대전노회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국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중부교회는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임명된 선교위원장은 맡겨진 사명에 따라 선교사 파송과 후원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국, 몽골, 가이아나, 싱가포르, 중국 등의 나라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아시아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중부교회가 한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부교회 당회는 1995년부터 예수찬양단을 중심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젊음과 꿈, 재능과 헌금을 드려 헌신하였습니다. 최영근 집사(당시 청년)는 단기선교팀 사역에 12년간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밤새 차를 타고 달려간 태국의 도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중부교회 출신 청년들 가운데 다수가 총신에 진학하게 된 것은 단기선교운동을 통해 얻게 된 또 다른 수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1993년에 태국에서 하던 사역을 두고 갑작스럽게 귀국한 사건은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두고 보면 큰 교훈과 위로가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태국선교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김재정 집사(현 선교사)가 헌신하였고, 지난 16년간 신실한 동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임태호 형제(현 선교사)로부터 시작하여 박하영 자매(전 선교사)로 이어지는 청년들이 헌신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제자요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직장도, 미래를 위한 계획도 내려놓고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태국 싹띠팝 교회의 첫 세례자 캄 성도(현 목사 사모), 찌이 자매(현 싱가포르 선교사)를 필두로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이들이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중부교회는 선교를 하면서 영적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중부교회는 이방민족과 더불어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태국 싹띠팝 교회의 첫 세례자 캄 성도(현 목사 사모), 찌이 자매(현 싱가포르 선교사)를 필두로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이들이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중부교회는 선교를 하면서 영적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의 젊은이들을 도전하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보혈까지 쏟으시며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가 온 땅에 충만하게 자라기까지 헌신을 다짐해 봅니다. *with*

싱가폴과 태국 선교를 위한 김정배 선교사의 기도제목

- 1_ 김정배 선교사가 GMS 지역대표회의에서 귀한 사명을 깨닫도록
- 2_ 이명국 선교사가 태국인 목회하는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도록
- 3_ 단기선교팀이 사역을 한 태국 각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 4_ 싹띠팝 각 교회 출신의 십부장 60명이 잘 양육되도록
- 5_ 싹띠팝 사역자학교 타문화권에 참여하는 강사진, 훈련간사 원진주 선교사의 헌신으로 4명의 청년들이 훈련을 잘 받도록
- 6_ 싹띠팝국제선교회(SMI)의 싱가포르 정부 등록이 잘 추진되도록
- 7_ 싹띠팝 교회단체(SCA) 년차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 8_ 모친 신수인 권사님과 세 자녀 재현, 은희, 상희가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지내도록



김정배 선교사 · 이명국 선교사
큰아들 재현 · 큰딸 은희 · 작은딸 상희



형식에서 본질로

글 · 이상현 목사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리모델링을 신호탄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서 ‘형식에서 본질로’라는 주제를 다룸으로 미력하나마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룰 ‘형식에서 본질로’은 예배의 측면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우리 교회가 외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인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예배의 정의를 생각해 보고 예배의 두 가지 방향성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이 글의 의도인 ‘형식에서 본질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예배의 정의다. 백과사전적 예배의 정의(禮拜, 문화어: 레배)는 문자적으로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으로,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어사전은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이라고 정의한다. 성경적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가치(존재와 여러 속성)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예배의 다양한 정의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배는 의식적 예배의 형태를 통해 본질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예배의 정의로부터 예배의 두 가지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찾아낸 두 가지 방향성을 숙고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 교회가 시작한 외적 리모델링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야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예배의 정신은 하나는 의식적 예배의 형태로, 다른 하나는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 의식적 예배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주일 예배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종교적 의식과 전례가 중요한 뼈대를 형성한다. 종교적 의식과 전례를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형식은 본질을 담기 위한 방편이다.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복음이라는 본질을 잘 담아내어

예배드리는 청중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게 만드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적 예배의 예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계4:10-11절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한 구절을 더 언급해야 한다. 바로 ‘형식에서 본질로’이라는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요4:20-24절이다. 예배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시선을 의식적 예배가 드러지는 장소(유대의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인의 그리스 산)로부터 예배의 근본 정신(신령과 진정)으로 이동시키신다. 즉 형식은 반드시 본질을 담아내어 변화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보며 교회를 성전화시키는 작업은 성경적이지 아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통해 왕 되신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드러나고 성도들이 행복해 하는 예배가 재현될 수 있다면 성경적 의도에 부합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변화된 삶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과정은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엔 반드시 말씀이 힘을 얻어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외적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는 필요한 형식인 새 부대를 준비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이다.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새 포도주이자 본질인 복음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생명 걸고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강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영적 유무상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꽃이 있는 곳에 벌이 모이듯이 권세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시대는 양극화로 가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빈곤해 지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마찬가지로이다. 교회가 진리 아래서 철저하게 자기반성과 점검을 통해 본질(복음을 통한 변화)을 향한 달음질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떠나는 위기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거대한 공룡의 멸종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외적 리모델링이라는 교회의 숙원 과제 앞에서 또 다른 은혜의 파도를 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 외침을 기억하자. **“형식에서 본질로!”** with



지금도 총신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는 학구파이신 목사님은 부드러움과 영적 충만함에서 나오는 예리함을 갖추셨다. 3교구를 담당하며 목회 열정을 쏟으시는 목사님은 도시목회와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을 잘 구비시키고, 선교사역을 부흥시키는 일에 비전을 갖고 계신다. 성약을 전공한 이선미 사모와 아들 요한(중1), 딸 예인(4세)을 두고 있다.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하비달중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중등부

글 · 한일민 집사(중등부 교사)



미리보는

20년 후의 중등부 문학제

"승준아, 오랜만이다. 준비는 잘했지?"

"저울아, 그 동안 잘 지냈지! 그래, 난 준비 다 했어."

게다가 오늘은 예원이가 반주를 해주니 벌써부터 설레는 걸."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들이지만 행사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아 간단히 인사만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30년 12월 21일, 대전중부교회 중등부 제49회 문학제와 하비탈중 20주년 기념식이 동시에 열리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문지울 하비탈중 동창회장님과 국세
은 부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문학
제와 하비탈중 축제의 막이 올랐
다. 피아니스트 김예원 자매와 한
양사역자 이승준 형제의 찬양을 통
해 행사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
도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새로이 중등부를 맡은 이요한 목사
는 이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였
고, 청소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



다. 하우진 목사님의 축도로 행사가 막을 내리자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여러 가지 기쁜 소식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간 양적 절적으로 크게 부흥된 중부교회는 지역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리더로 길러내고 있었다. 중등부 시절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예배시간에도 잠곤 했던 손예환 집사는 최근 히트작인 '바이بل 어드벤처'라는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같은 동기인 박범진 집사는 청소년들이 가장 존경하는 젊은 벤처기업인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청소년 상담가로 2030년 단기 선교팀을 이끌었던 오성광 집사는 이날 150여명의 태국과 몽골의 청소년들을 행사에 초대하여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중등부, 줄여서 '하비탈중'

올해 우리 중등부의 사역은 하우진 전도사님의 부임과 함께 하비탈중을 표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 한 구석엔 늘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세상이 애기하는 성공적인 삶, 잘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복된 삶,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창12:2). 하나님께서는 올 한해 중등부 형제 자매 모두 이 비전을 품고 힘차게 달려 가도록 하셨습니다.

올해 중등부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모두가 이 비전을 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분기에 실시된 임원수련회, 봄맞이 수련회, 교사수련회 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되고 단련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초청 예배를 통해 하비탈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녀로 양육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봄맞이 수련회 마지막 밤에는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 집으로 초청하여 1박을 하며 서로가 급속히 친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서는 학습, 세레 문답과 노회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 나갔고, 현충원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한층 성숙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중등부는 대외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었는데요. 노회 성경퀴즈 대회에서는 아쉽게도 1등은 놓쳤지만 2등에서 10등까지 모두 우리 중등부가 차지 하였고, 풋살 대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우승을 쟁취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경험하는데, 진위가 의심스럽지만 우리 반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에서 방언이 터졌다고 상황을 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중등부는 올해 12월의 마지막 행사인 문학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날에는 그간 모두가 참여하여 준비한 위십, 성극 그리고 중창과 기타합주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등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강조됩니다. ‘오늘 드리는 한번의 예배가 10년 후의 인생을 좌우한다.’ 하우진 전도사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에서는 정찬호 선생님이 지도하는 ‘에바다’ 찬양팀과 권오현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임마누엘성가대’가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며 전도사님의 말씀 선포와 교제의 시간, 분반 모임을 통해 매주 기쁨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의 선생님들은 청년으로부터 장로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련함과 생기 발랄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유난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많이 계셔서 영적 중량감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으로 저희를 놀라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등부는 최강의 임원진을 자랑합니다. 오차불가 이종덕 회계 선생님, 정리본능 박연희 서기 선생님, 무한지능 유혜경 총무 선생님이 계셔서 언제나 든든한 우리 부장님. 그 외에도 신입반과 학년별로 받을 맡으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나름의 개성과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시는 그야말로 환상의 조직입니다.

앞서 저는 20년 후의 중등부 문학제를 가상하여, 꿈과 함께 자라난 우리 중등부의 미래를 상상하여 보았습니다. 아직은 철이 없고 어리게만 보이는 중학교 학생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들을 보면 모두가 새시대의 리더이자 전문가이며 헌신적인 일꾼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저희에게 맡겨진 것은 참으로 귀한 사명입니다. 목시가 없는 민족은 방자히 행한다고 하였습니다(잠29:18). 우리의 귀한 청소년들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안에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중등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with*



한일민 선생님은 부산출생으로 현직장 애경산업중앙연구소 치약개발연구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대전에서 근무중. 서울 구파발교회에서 지금의 아내와 만나 결혼하여 개구쟁이 아들 지성,준성이 있음. 현재는 대전중부교회 중등부교사로써 1학년 3반 담임으로 비전을 품고 사랑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우리는 고우님의 “보람”입니다

글 · 최정은 기자

뽕... 뽕... 뽕...

차량관리팀 소속 차량관리 위원들, 새벽을 깨우며 사랑스런 중부교회 가족들을 모시러 오늘도 달린다. 평일 새벽기도 때는 2대의차량, 기도의십일조 기간에는 4대의차량, 전후반기 특별새벽기도 때와 매주일 예배 때는 6대의 차량이 모두 움직인다.

젊은 성도님들은 본인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오는 관계로 봉사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모시는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차 안에는 잔잔한 복음성가가 흐르고, 인생과 신앙의 선배들이신 성도님들과 운행 중 나누는 대화를 통해 오늘도 신앙과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며 보람도 느낀다.

“차량관리팀으로 봉사를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군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려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것이 차량관리팀 봉사이지요. 그러나 제가 찾은 것이 아니라 이제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걷는 자의 역사가 아니라 걷게 하시는 자의 역사라고나 할까요? 허허... 앞으로도 계속 봉사의 기회를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차량의 문을 열고 닫기에 힘들어 하십니다. 타고 내리실 때 거동이 불편하므로 자칫 부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봉사차량을 자동문으로 개조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강원도 고향으로 내려가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중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늘 감사하다’고 하신 것이 보람이라는 훈훈한 미담도 전하고 있다.



차량관리팀 내에 또 다른 숨은 봉사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다름 아닌 주차봉사부...

매주일 2-3부 예배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부흥회, 특별행사시 언제나 주차봉사부가 필요한 곳에는 어김없이 주차봉사부가 활동한다.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첫 인상이 되고, 빠르고 친절하며 편안한 주차 안내로 예배를 돕고 있다.

드디어 예배를 드리러 성도님들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하나 둘 들어서자 바빠지기 시작하는 주차봉사부! 안내하고, 인사하느라 정신없어 보이는데, 바쁜 가운데도 일사분란하게 척척 움직이는 주차봉사자들... 비결이 뭘까?

오늘의 임무!

주어진 시간 동안 사고 없이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차시키기!

각자의 위치로 이동하는 주차위원들은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20분가량의 숨쉴 틈 없는 시간이 지나자, 주차는 모두 끝난 듯하다. 임무 완수!! 이제야 한숨 돌리는 주차위원들.

“처음 교회에 들어설 때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이들이 주차봉사자들 이다보니, 늘 즐겁고 기쁜 얼굴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성도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는 반면 일부 협조를 잘 안해 주시는 성도분들이 있어서 힘들고 마음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봉사고 뭐고 내년에는 그만뒀다지 하다가도 바로 회개하며 돌아서던 세월이 어느새 10여년이 되었네요.”

주차봉사부에는 주차봉사 외에 베데스다예배에도 함께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은 참으로 헌신적인 봉사자들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교회 봉사부의 자랑 중 하나는 서로간의 우애가 남다르다는 점이다.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 서로 안아주고 다독여 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다.

차량관리팀 팀장 나승문, 총무 정구훈, 서기 진재주, 회계 윤원용, 위원 박태식, 김동운, 공종호, 순찬호, 양병수, 유창웅, 이신순, 이영학, 이원명, 황덕순 주차봉사부 부장 이종규, 회계 이길천, 위원 권태중, 김상복, 김종현, 박노태, 박대수

숨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않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예배의 뒤편에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성도님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배를 돕는 자, 그들은 소망의 메신저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13:14]

교회 규모에 비해 봉사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 많은 봉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많은 이들의 지원을 바라며, 오늘도 마음 따뜻한 차량관리팀과 주차봉사부의 건승을 기원해본다. with

"박지성보다 내가 한 수 위...!"

글·최정은 기자

지금으로부터 3년전 어느 날...

축구선교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동기부여는 없었으나 삼삼오오 모여서 시작된 모임이 어느덧 60여 명으로 훌쩍 늘어나더니만 금세 축구선교회 발대식을 성대(?)하게 치르기에 이른다.

서로서로 운동에 대한 열의와 함께 선수로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기며 믿음, 소망, 사랑팀으로 나누어 뛰고 또 뛰었다.

세월이 흘러 어언 3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을 법도 한데 열악한 재정상황, 늘어나지 않는 회원 수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은 안정보다는 도전을 더 원하시는가보다.

중·고·청장년 합60명 정도의 거대 회원을 거느린 축구선교회는 회장 박민수, 총무 이길천, 회계 유영삼을 주축으로 안중근, 김상희, 나광수, 윤양찬, 양희찬, 윤원용, 이영학, 이승태, 이상현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유럽 프리미어드급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축구계의 올리버 칸, 거미손 골키퍼 박민수 집사님
왕년에 차범근과 한솔밥을 먹었다는 하체부실 이영학 집사님
장난기어린 눈망울이 닮은 자칭 이영표, 유영삼...
중부교회의 대들보 미드필더 청년들
상대방 골키퍼와 사이좋게 붙어다니는 스트라이커 윤양찬 집사님



축구 이야기만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안중근 집사님

이 모두가 사랑스런 우리 중부교회 한 가족이니 그들을 바라볼 때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행복해지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것같다.

개인의 건강관리, 많은 이들과의 교제, 풍부한 사회성 등 보람도 많지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교회차원에서 후원이 없다보니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새신자들을 많이 영입하고 싶어도 자비량으로 감당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운동시간은 상반기(봄·여름)에는 오후예배후에 모이며 하반기(가을·겨울)에는 오후1시부터 3시까지로 편성하고, 회칙은 없으며 자율축구를 표방한다.

현재 15명의 주축회원이 회비를 내서 운영중이니 회비걱정은 마시고 일단 운동장으로 열정만가지고 달려들 오시라.

참고로 우리축구선교회의 열정에 MB정부도 감격했는지 현재 전용구장인 가양중학교 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의 공사가 한창이다. 이제 곧 푸른 잔디구장에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듯하다.

가양감리교회, 반석교회, 대동교회, 영락교회 등과 매월 친선게임을 하는데 실력은 박빙이나 우리 교회가 팀웍에서 다소 우위에 있음이 자랑이라면 자랑이다.

시합 후에는 매주 다양한 메뉴의 연회(?)가 이어지며, 한주간을 마감하고 또 한주간을 시작하는 즐겁고 보람있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축구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나 부담없이 축구선교회에 가입하셔서 함께하시면 된다. 선교축구를 목적으로 하는 축구 사랑 모임으로 축구를 함께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여 영혼구원과, 성도간의 교제를 넓히고 강인한 체력으로 영력을 뒷받침 하고자 한다.

남, 여 불문으로 선수와 서포터즈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나 새신자는 더욱 더 환영하고 사랑한다. 많은 신입회원들의 참여와 기존회원들의 관심 있으시기를 기대한다.

축구선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하나님님의 은혜로 우리중부교회 축구선교회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길 기도해본다. *with*



“**아기학교**는 **아기와 엄마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글 · 하서운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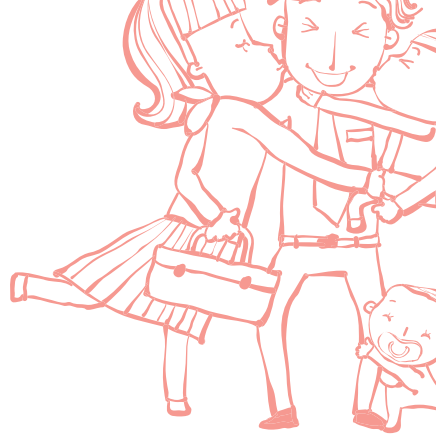
기도와 달란트로 뭉쳐진 열다섯 분의 교사와 저는 아기학교 친구
와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며
기도와 열정으로 아기학교를 준비했다.

CTS와 극동 방송을 통해 중부교회 아기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었고 드디어 올해 9
월 9일 ‘믿음 쑥, 생각 쑥, 톡톡 튀는 성경 속으로’ 멋진 여행을 떠나는 3기 중부 아기학교
에 20명의 아기친구들과 엄마들이 은혜롭게 입학식을 하게 되었다

2기 때와는 다르게 많은 엄마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3일 만에 아기학교 등록이 마감된 아
기학교는 엄마의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개방하였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라
모든 것이 서투른 중부 아기학교 친구들이었지만, 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엄마와 함
께하는 다양한 경험, 또래 친구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가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

또한 아가의 눈높이에 맞춘 자유놀이, 신체 활동, 뮤직 캠프활동, 창작 활동, 반별 활동,
가베 활동, 야외 나들이 활동 등 일관성 있는 주제 활동을 진행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
험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아가로 자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아가로 자라
도록 하는 것이 아기학교의 목적이다.





아기학교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엄마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아주 감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다. 믿음 안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의 청지기적 사명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소망하게 되었다

“벌써 3기 수료를 눈앞에 두고 여기까지 아기 학교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스무 명의 엄마와 아가가 낙오 없이 모두 열매 맺게 하시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저에게 있다면 아기학교를 수료한 모든 친구들이 신앙의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으로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이 땅의 리더로써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아기로 자라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한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멀리 월평동에서 오는 정원리와 어머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신앙의 열정으로 가수원에서 가양동까지 달려온 시우와 하민이 어머니, 3기 아기학교 모든 친구들과 어머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헌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 사랑합니다. *with*

하서운 전도사는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담당하시던 중, 유아교육과 신학 전공을 살려 아기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3교구 전임 전도사로도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은 강병철 집사(한밭제일교회)와 수정(중3), 지혜(중1), 인현(초6)과 함께 신앙으로 하나된 가정을 꾸미고 있다.





“제 2 아기학교를 만나다”

민주를 변화시킨, 놀라운 시간들

엄마 조경희
아기 김민주

대전중부교회 가족이 되어 여러모로 적응해 가는 중에
아기학교 모집을 하고 계셨던 선생님들의 관심으로 민주와 저는 낯선 환경에서
매주 목요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시선과
민주 이름을 불러주며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금방 적응이 됐는데
문제는 민주였습니다. 민주는 눈만 마주쳐도 엉덩이를 뒤로 빼며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공부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울며불며 신발을 신고
선생님의 관심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며 고집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우리선생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으로
민주는 눈에 띄게 변하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으며 오늘 까지 왔습니다.
아기학교는 체계적으로 하루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먹는 것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영양 만점인 간식이 잘 준비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시간의 모든 활동에 참여한 우리 아기학교 친구들이
그냥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친구들 맘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교육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길
믿음의 멋진 친구들로 잘 자라길 믿으며 기도합니다.





정수진 선생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아기학교 교사

“민우야. 하늘과 땅과 바다는 누가 지으셨지?”

“응, 하나님이에요. ^ ^”

민우의 작은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이 아기학교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되돌아봅니다.
바쁜 일상으로 부담을 갖고 늘 분주히 살아가던 저의 삶 가운데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아이들의 모습과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사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기 아기학교를 수료하고, 어려운 형편과 힘든 상황에서도 2기와 3기 교사로 섬기며,
함께 나아갑니다. 아기학교를 섬기는 분들의 모습과, 사랑과 기도로 모든 엄마와 아기가 더
욱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먼 길을 다니지만, 가장 행복한 모자랍니다.

엄마 이미화 [가수원장로교회]
아기 김시우

하나님의 선물로 셋째를 낳고 키우던 중 신앙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길 기도했습니다.
방송에서 중부교회 아기학교를 접한 후, 첫 번째로 등록했습니다.

관저동에서 가양동이 멀었지만 대전에 있는 것에 감사했고,
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했기에 중부아기학교 가는 길은 행복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기학교는 헌신과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었고 충성스런 전도사님과
은사가 많은 선생님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비전을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아기학교를 다니는 시우에게 만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중부교회 아기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터전 송촌동

글 · 심재성 기자



이번에 소개할 ‘우리 이웃 좋은 이웃’은 송촌동이다. 송촌동은 대전시 대덕구 남동쪽에 자리하며 비래동, 용전동, 중리동, 법동과 접하고 있다. 동 이름은 은진 송씨 가문이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송촌동은 윗송촌·양지뜸·웃골·음지말·팽전말·학당이·흙통골 등의 옛 마을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금바위·매봉산·진날 등의 이름을 가진 야산이 있고 계족산과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매봉산에서 매봉초등학교, 매봉중학교 등의 학교 이름이 연유한다.

송촌동은 원래 조용한 교외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었는데 90년대 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개발되면서 여느 변화한 지역 못지않은 곳으로 탈바꿈하였지만, 기존에 정수처리장이라든가 ‘동춘당 공원’ 등이 있어 난개발이 되지 않았었고 그에 따라 오히려 주민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개발 지역 한 가운데에 여전히 ‘동춘당 공원’ 같은 보존구역이 자리 잡고 있고,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계족산 덕분에 개발 이후에도 동의 모습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주민은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이후 가장 달라진 모습이 아파트 베란다에 쌓이는 시커먼 먼지의 양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라며 고속도로가 인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 곳의 공기가 깨끗함을 자랑했다.





‘동춘당 공원’의 경우, 조선 효종 시대에 벼슬을 지낸 송준길이 배우고 가르치던 공간인 동춘당과 고택(古宅), 그리고 후손인 송옹역 가옥 등이 보존되고 있는 곳인데, 최근 다시 옛 모습으로의 복원을 통해 개울물과 연못, 정원수 등이 어우러져 도심 속의 휴식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 교회 원로목사님께서 사시는 곳에서 바라보면 ‘동춘당 공원’이 마치 집 앞 정원인양 펼쳐져 있어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게 한다.

최근에는 대양초등학교 옆에 송촌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서관(송촌평생학습도서관)이 개관되어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지은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남녀노소 물론하고 인근 주민들이 즐겁게 책을 읽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계족산의 경우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등산을 운동 겸 취미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최근 더욱 각광받는 공간이 되었다. 마침 계족산 등산로 중 일부가 송촌동에서 출발하고 있어 평일 오후나 휴일이면 등산복 차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다.





“송촌동은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자연 환경과 문화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좋은 이웃이다. 다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반면에 최근 이 지역이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세상적 가치와 세속적인 문화가 지나치게 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of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동춘당공원 맞은편으로는 이 지역의 개발과 함께 주택가와 상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특히 많은 식당들이 이 곳에 밀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음식특화거리 (일명 ‘먹자골목’)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현재 여러 식당들이 다양한 메뉴와 맛으로 인근 주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렇듯 송촌동은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자연 환경과 문화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좋은 이웃이다. 다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반면에 최근 이 지역이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세상적 가치와 세속적인 문화가 지나치게 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of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걱정이 단지 기우(杞憂)로 끝날 수 있게 하려면 송촌동의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좋은 환경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안 좋은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창한 무슨 무슨 정책이나 무슨 무슨 도시 계획 등을 꼭 세워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몸담고 있는 각 지체가 선한 마음과 공동체를 우선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또 그러한 마음들이 자연스레 몸으로 옮겨진다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믿는다. *with*

평화의 마을

아동 복지센터



다툼과 상처가 무성한 그늘진 땅에 울타리를 치고
웃음과 울음으로 햇빛삼고 거름삼아 평화를 일구어 온 작은 숲을
“**평화의 마을**” 이라 불렀다.

글 · 조재란 기자



1951년 8월 6.25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기독교인에 의해 평화의 마을 아동복지 센터가 설립되었다. 기양4거리와 성남동 사이에 위치한 이곳에는 현재 4~5세의 유아부터 대학에 다니고 있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총 7명의 아들, 딸들이 있고 아이들과 직접 숙식을 하며 생활지도를 해 주시는 생활지도선생님 11분을 포함하여 영양사, 간호사 등 총 19명의 직원이 계신다. 교회 회지에 평화의 마을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취재를 나온 중부교회 집사라고 인사를 드리니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최소자 국장님께서 친히 열쇠꾸러미를 집어 드시고는 이곳 저 곳을 데리고 다니시며 보여 주시고 설명해주셨다.



건물 외부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내부의 모습은 아파트와 빌라와 같은 여느 가정집의 모습 그대로이다.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하여 한 호실에서 5~6명의 아이들과 이모라고 불리우는 생활지도사 선생님 한분이 같이 생활한다.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도 있고 학습지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그룹공부방 또는 개인공부방에서 충분히 공부도 할 수 있다. 영양사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 또한 정성스럽고 푸짐하다. 아이들이 비록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이곳 평화의 마을에 오게 되지만 이곳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꿈을 키워 공무원과 의료 전문인이 된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평화의 마을 온 가족은 일년에 한번은 꼭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한다. 중고생 이상은 '평화의마을 조국기행'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8월 중 일주일동안을 여행하는데 올해가 22번째 여행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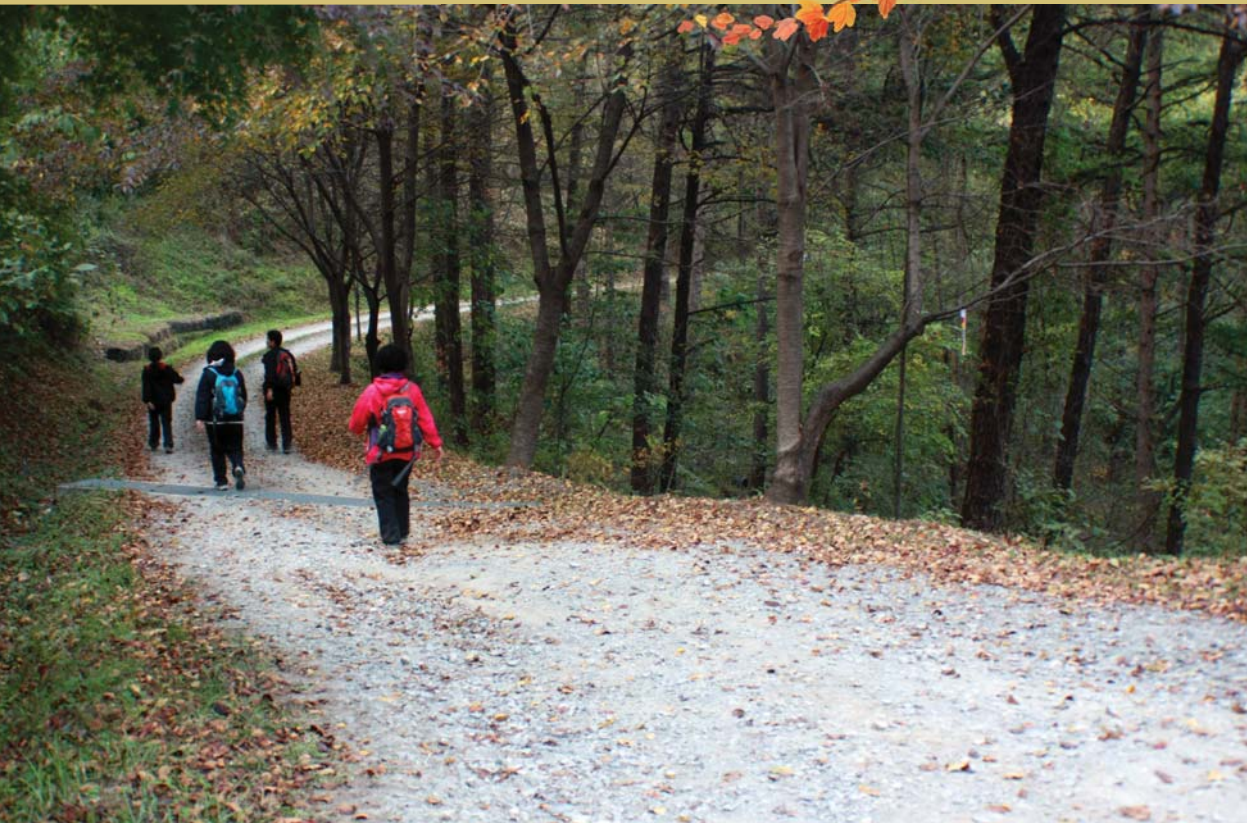


이 여행을 위한 경비마련을 위해 4월과 5월중에 돈까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자체적으로 모금행사를 준비하느라 어렵고 힘든 점도 많지만 아이들 스스로 준비하고 마련하여 여행을 다녀오면서 더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초등생 이하 아이들은 '가족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2박3일간 여행을 하는데 후원가정을 초청하여 참여한 가족과 평화의 마을 아이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 가정체험을 하며 정서적인 만족을 이루어주기 위한 여행이다.



나도 언젠가 꼭 한번 후원가정으로 참여하여 그 아이들과 함께 해 보기로 소망하였다. 하지만 며칠간의 행복 뒤에 다시 현실을 깨달아야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온다. 주어도 끝이 없고 받아도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랑인데, 이곳 평화의 마을엔 상처로 채워져 들어온 아이들이 이기에 끊임없이 사랑에 배고플 것이다. 취재할 땐 학교에서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돌아왔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최소자 국장님의 모습을 뒤로 하며 평화의 마을을 나섰다. 마침 그 날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나와 건물 한곳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 아직은 남아있는 관심과 사랑에 묘한 안도감이 생겼다.

우리의 주변이나 교회 안에도 아직 상처로 채워져 사랑을 갈급해하는 지체들이 많을 것인데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졌는지... *with*



걸어보셨나요? 계족산 숲길, 둘레길 따라서...

글 · 김용수 편집장

사람은 보통 첫 돌을 지나면서 걷기 시작한다. 사람이 걷기를 멈춘다는 것은 곧 삶이 멈춘다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걷기에 대한 욕망이 위로 펼쳐지면서 등산이라는 운동이 시작됐다. 생계를 위한 걷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면의 웅숭음을 위로 향한 걷기로 표현하는 것일 게다. 등산은 위를 향한 도전이다. 오온선은 히말라야 8,000미터급 14봉을 여성 최초로 완등 했다고 해서 화제를 낳았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다고 우리의 열심을 다그치는 격언도 있지만, 왜 오르고 올라야만 하는가? 둘러 갈 수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둘레길 걷기가 시작됐고 무슨 열병처럼 도지고 있다. 왜 갑자기 둘레길인가? 피에르 생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중 ‘한가로이 걷기’에서 “한가로이 거니는 것. 그것은 시간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게 쫓겨 물리는 법 없이 오히려 시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둘레길 걷기는 위로만 향해 전투하듯 걷던 습관을 옆으로 향해 걸으며,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번잡한 삶을 평평하게 펼쳐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가로이 거니는 것. 그것은 시간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게 쫓겨 물리는 법 없이 오히려 시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둘레길 걷기하면 ‘지리산 둘레길’ ‘제주 올레길’ ‘북한산 둘레길’ ‘대관령 바우길’ 등을 떠올리게 된다. 둘레길 걷기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자유인을 말하는 것이 우습게 되는 시절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리산, 제주, 북한산, 대관령 하다 보니 너무 멀어 보이고, 지금이 아닌 나중의 일로 미루어 놓기 일쑤이다. 정말 그곳밖에 없는 것일까?

대전에 산 다는 것은 자연친화적으로 사는 것에 상당히 복 받은 삶을 사는 것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주변부는 늘 우리를 품고 안을 자세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품을 잘 알지 못한다. 이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있다. 우리 바로 옆, 계족산에...

가을 햇살이 따듯한 오후에 필그림 카페에서 커피 향을 뒤로하고 계족산을 향했다. 가양비래공원을 지나면 옛 경부고속도로와 대청호로 나뉘는 길이 나온다. 좌측 길, 이 길에서 계족산 고개를 넘어 대청호와 친구하며 걸을 수 있는 임도가 나타나는데, 작은 오솔길에 아닌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길을 도시에서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 계족산은 423.8미터의 작은 산이지만, 계족산 일몰은 대전8경 중 하나이며, 산 중간에 있는 계족산성은 인근 산성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발달된 백제 성이다. 이 계족산 정상은 향해 난 크고 작은 등산로를 경사를 따라 옆으로 이어 놓은 숲길이 최근 연결



되었다. 총 연장 42.25킬로미터. 마라톤 코스와 비교해보면 계족산 숲길이 쌍둥이 형 쯤 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맨발 마사이가 마라톤이 열리는 황톳길 코스 14.5킬로미터와 함께 42.195킬로미터의 마라톤 풀 코스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마라톤을 한다면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은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낙엽처럼 덧없이 되지 않을까?

역시 임도에는 차량들이 오갔다. 나 또한 멋진 드라이브를 하고 이런 임도를 다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살을 흘렸다. ‘이런데 까지 차를 몰고 다녀야 하나? 느리게 걷고,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꿈을 꾸는 행복을 알기는 하는 거야?’ 정확히 삼년 전 내가 차를 몰고 가던 길이었으니, 이것이 깨이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다.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은 둘째 치고 바로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것은 깨달은 사람의 생각이다. 숲이 주는 선물.

계족산 숲길은 다양하게 여러 경로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산 높이에 능선과 임도가 연결된 많은 숲길은 계족산 둘레의 여러 마을과 연결되어 있고, 능선 따라 등산을 하면, 대전시 전경과 그림처럼 펼쳐진 대청호를 모두 볼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간 100만 여 명이 계족산을 찾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선정 오월에 가볼 만한 최고의 명소에 추천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족산 둘레를 연결하는 코스는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레길이 제대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산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을 연결하며, 마을에 사는 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제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족산 숲길 아래의 둘레길이 전혀 만들어 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오늘 걷기로 한 길이 숲길 따라 가다가 연결된 천개동과 상추, 추동으로 이어지는 마을길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청호가 만들어 지면서 이주해 사는 분들이므로 삶의 고된 애환이 커져서 쌓여 있을 것이다.

“계족산 숲길은 다양하게 여러 경로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산 높이에 능선과 임도가 연결된 많은 숲길은 계족산 둘레의 여러 마을과 연결되어 있고, 능선 따라 등산을 하면, 대전시 전경과 그림처럼 펼쳐진 대청호를 모두 볼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후 4시를 넘으며 대청호 방향의 숲길에는 해가 살짝 비껴갔고, 멀리 푸르른 대청호는 햇살에 아름다웠다. 계족산은 참나무가 많은 편인데, 천개동으로 이어지는 숲길에도 참나무가 많았다. 더러는 인공 조림한 침엽수 군락도 있었는데 가을 정취를 더하는 단풍나무는 찾기 어려웠다. 숲길을 1시간 여 걸자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로지 걷는 일에 즐거움을 더할 수 있었다. 산악자전거도 즐기기에 좋은 길이었으나, 걷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외계인이 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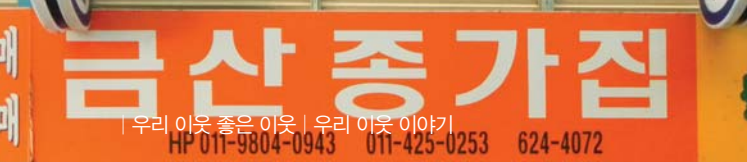
구절초와 벚하며 길 양 쪽에 쌓여있는 낙엽은 단풍나무 잎이 아니더라도 좋았다. 보통 단풍놀이 간다고 하는 것은 단풍나무만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지만, 단풍놀이의 단풍(丹楓)과 단풍나무의 단풍은 같은 뜻이기에 가을 날 따사롭고 볼그레한 것과 바람 난 나무가 단풍나무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며 호젓이 걷기에 열중했다.





천개동부터 추동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국화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길 마다, 집 안 뜰 마다, 심지어는 드넓은 마을 밭 전체가 오색의 국화로 물들었다. 가을 숲길 걷기만 해도 행복한 일탈인데, 여기에 바람에 실려 정신 아득하게 만드는 노란 국화 향이라니. 평소에 노란색을 좋아하고, 국화꽃을 좋아해서 가을이면 노란 국화에 유난히 눈길이 가는 터라, 오늘 느닷없는 국화 잔치 초대는 호사라면 호사일까? 알고 보니 요즘이 대전 동구청에서 주관하는 국화 축제였다. 산 넘어 뒷동네에서 이런 좋은 축제를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조금은 안쓰러웠다. 음식이 있으므로 삶은 더욱 신나는 법. 향 가득한 국화차보다는 시장한 배를 채워 줄 마을 부녀회에서 정성껏 만든 녹두지짐이에 따뜻한 국물이 좋은 어묵으로 두 시간 사십 분간의 계족산 숲길 여정을 마쳤다.

계족산 숲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출발 전에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등산로를 미리 검색해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느 곳으로 빠지던지 길을 잃거나 할 염려가 특별히 없으므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일단 출발해서 이정표 등을 보면서 목적지를 그때그때 정해 보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계족산 옆으로 난 숲길은 계족산 능선과 둘레길을 아우르는 차도와 모두 연결 되어 있으므로, 감각적 오리엔티어링을 해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대중교통은 추동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대전대와 대전역을 경유할 수 있다. 아니면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지속해도 좋을듯. with



마음은 우리와 함께 신도 시장을 가다

글 · 심재성 기자



금산종가집

조숙희 전도사님의 소개로 먼저 방문한 곳은 2006년부터 신도시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금산종가집>이었다. 오전 중에 방문 드리리라 미리 얘기를 해 놓고 오후가 되어서야 방문을 하는 바람에 많이 죄송스러웠다. 하지만 <금산종가집>의 김경태 사장님은 사람 좋은 미소를 연방 지으며 반갑게 전도사님과 기사를 맞이해 주었다. 가게에는 건어물과 인삼 등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건축업을 하며 많은 건물들을 지어 올렸는데 나이도 먹고 건강도 좋지 않아 몇 해 전부터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한다.

현재 김경태 사장님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녀본 경험은 많이 있으시다 한다. 초등학교 때는 10리길도 더 되는 길을 걸어서 교회에 다녀보기도 했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 믿음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지 못했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참 재미있었고, 지금도 책을 보거나 무언가 배우는 일을 즐겨하고 있다고 한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공부도 참 좋아했고, 잘 했어요. 사실 말이지, 이렇게 장사할 친구가 아니지요.”

마침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웃의 친구 이왕규 사장님의 증언이다. 이어 김경태 사장님은 전에 전도사님께 받았다는 우리 회지 <함께> 2호를 꺼내 보이시며,

“전 이런 책 받으면 꼼꼼히 다 읽어봅니다. 이런 걸 읽으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또 통일교 기사의 경우, 제가 좀 알고 있던 것에 이렇게 정리된 글을 더하니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라며 반갑게도 우리 회지에 대한 독자후기까지 더해 주었다.

김경태 사장님과 이왕규 사장님은 같은 학교 동창으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왔고, 지금도 가까이에서 지내며 자주 만나고 있는 사이라 한다. 마주 보며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는 두 분의 모습이 참 보기 흐뭇했다. 그러면서 두 분 다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음을 이야기했다.

김경태 사장님의 경우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한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처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관심이 있었다 한다. 진작 알았더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 이왕규 사장님은 교회 카페 ‘필그림하우스’에 가고 싶는데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 여태 못가고 있다며 자기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도 괜찮겠냐고 물어왔다. 이야기를 들던 전도사님이 그런 걱정 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라고, 맛있는 커피 대접하겠다고 말씀해 주었다.





영자네반찬

두 분과의 즐거운 대화를 정리하고 이어 방문한 곳은 <금산종가집>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영자네반찬>이었다. 사장님의 성함이 김영자씨라 가게 이름도 친숙한 <영자네반찬>이었다. 최근에는 야채가게와 함께 하고 있어 <영자네반찬>이란 간판과 <가양야채>라는 간판이 함께 붙어 있다.

가게 문 앞 좌판 위에는 신선한 야채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맛깔 나는 반찬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전도사님 말로는 이곳이 가양동의 건강을 책임지는 반찬가게로 소문이 자자하다 한다. 실제 보니 먹음직스러운 반찬들과 직접 재배한 신선한 야채들을 바로 집에 사들고 가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가게에 들어서니 인심 좋게 생기신 사장님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영자네 반찬>의 김영자 사장님은 전도사님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터였고, 사실 이전에 우리 교회에도 등록해 다녔었다 한다. 지금은 여의치 않아 교회를 다시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함께 하고 있음을 내비치신다. 특히 신탄진에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우리 회지 <함께>를 읽어보라 권해주었는데 잘 읽고 있다며 관심을 보여 주었다.

기자와 얘기를 나누면서도 쉬지 않고 깻잎을 다듬고 있는 사장님의 손은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 손을 보고 있노라니 오랜 세월 음식 장사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온 사장님의 손이 그 어떤 손보다 소중한 손으로 여겨졌다. 힘겨운 삶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의, 우리 누이의, 이모의 손이 모두 그와 한 가지일 것이기에 느껴지는 심정이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 그들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발하는 빛이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의 빛이 환하면 환하게, 우리의 빛이 어두우면 어둡게 비쳐진다는 당연한 진리 앞에 마음만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김경태 사장님과 이완규 사장님, 그리고 김영자 사장님에게서 어떤 희망의 싹이 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with*

연단 속에 피어나는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

기독 동아리 탐방 - 동아주바라기를 가다

글 · 심재성 기자

동아미스터고(구.동아공고)에 들어서면 넓은 캠퍼스와 깨끗한 시설이 방문자의 시선을 끈다. 푸른 인조잔디로 꾸며진 넓은 운동장은 보기만 해도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 1000여 명 학생들이 배움의 열정을 쏟고 있는 이 학교에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15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내 기독교 동아리(동아주바라기)의 현재는 못내 아쉬운 형편이다. 학교에서 종교적 동아리 활동을 너그럽게 봐 주지 않아 동아리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처음 취재를 결정하고 동아리 지도 교사를 만나 보니 지금의 상황 때문에 과연 취재 기사를 책에 실어도 될는지부터가 걱정이었다.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니만큼 동아리 활동상이 책으로 소개된 사실이 알려지면 앞으로의 활동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처한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지혜와 응원을 모아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취재를 강행하기로 했다.

다음은 동아리 지도교사 백남영 선생님과 인터뷰 내용이다.

Q. 동아리가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1995년입니다.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복고(현 한빛고)와 연합으로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복고에는 지도교사가 없는 채로 몇몇 학생들이 모여 예배드린다는 소식에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Q. 그간의 활동 중 특별히 기억되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1995년 1회를 시작으로 찬양집회를 매년 개최하여 5회까지 드렸는데 그 이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3월에 기독교 동아리 10년을 기념하여 '십년지기'라는 찬양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퇴임하신 김용대 교장선생님께서 당시 교감으로 계시며 동아리실(현 기숙사 지하 탁구실)을 허락해 주셔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현재는 반납한 상태입니다.

Q. 현재 몇 명의 회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3개 학년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매주 금요일 점심식사 후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주사랑 교회에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Q. 동아리는 누가 지도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은 제가 담당했고 올해부터는 우리 학교에 새로 오신 LED조명과 의 이점섭 선생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바라기에서 황인홍 간사님을 금요 예배 때마다 파송해 주십니다.

Q. 동아리실을 반납한 상태라고 했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리고 있나요?

1학기까지는 동아리실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최근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과학 선생님의 양해를 구해 과학실에서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학교 측에는 극비사항입니다.





Q. 이렇게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은데요. 동아주바라기가 자랑할 만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별로 내세울 게 없네요. 글썄요. 끈질기다고나 할까요. 내세울 건 없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Q. 현재 동아리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동아리실이 없는 점이지요. 동아리실이 없어 모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의 높은신 분이 기독교를 반대하셔서 지하동아리로 전락하여 눈치 보며 예배드리고 있는 점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Q. 정말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런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너무나 무기력하고 부족해서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동아미이스터고 학생들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동아리가 처음부터 품어온 소망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비전이 아닐까 합니다.

Q. 네,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픈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예배를 통하여 복음화가 이뤄지게 하소서”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하소서”

선생님과의 인터뷰 이후 시간을 정해 학생들과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동아리 회장 이성진 학생(3학년, 오정동 새하늘 교회)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의 표정은 무척 밝은 모습이었다. 현재 학교의 상황은 어려운 편이지만, 모두들 그 어려움을 패배의 빌미로 삼으려 하지 않고,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기에 분명 머지않아 이 어려움은 극복되리라 믿는다. 동아 주바라기 안에 준비하신 또 다른 계획하심을 따라 오늘도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며 예배드리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로 중보해 주고 격려해주어야 하리라. *with*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샤르하드 은혜교회!

글 · 이종현 선교사



이종현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유년시절부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1998년 3월 6일 몽골 선교사로 파송되어 13년째 몽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신다. 교회 사역과 학원사역, 복지사역에 전념하고 있으며, 버여 목사가 총신대학원에 유학하여, 2010년 10월 몽골에서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하였다. 선교사님에게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난다.

“박사! 비자 걱정 말아요. 나을 거예요”

저녁 기도모임에 들어서는데 마당서 농구하던 청년 암카가 나에게 웃으며 말을 건넨다.

저녁 특별기도모임 전에 교회에 모인 청년들이 소원을 담아 3점 슛을 던졌는데 3차례 다 들어갔다는 것.

자기의 한국 비자가 빨리 나오도록, 선교사의 비자가 나오도록, 교회 출석한 지 3개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 두리번거리던 암카...

그래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 그 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청년이다. “믿음으로 기도 해야지! 무슨 내기야?” 했지만 난 너무 고맙다.

작년부터 몽골엔 선교사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올 해도 5가정이 추방되었다. 구제와 교육 목적의 NGO 비자를 받고 활동한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국가 훈장을 받았어도, 공로상을 받았어도, 목적외 활동으로 범법자가 되어 버렸다.

샤르하드 교회와 많은 기도 동역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종교비자의 열매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

98년 3월 입국하여 샤르하드교회 섬김을 시작했으니 13년이 되었다.

잘 알지 못하는 나라! 이해 할 수 없는 나라!

춥기는 왜 그리 춥던지... 첫 번 맞은 겨울, 교회 갔다 오는 버스에 앉은 시간은 30여분, 나의 발은 얼었고, 그 뒤로 손과 귀까지 얼었다.

긴 겨울 저녁 시간엔 민간요법이라며 아이들이 가르쳐 준대로 성냥불로 소독한 바늘로 피를 통하지 않게 묶은 다음 죽은 피를 뽑으며 그들의 생활을 배우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 겨울의 추위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겨울이었다.

지금 그 추위를 즐기면서 지낼 수 있으니 체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몽골 청년들은 참으로 재미있다.

시간만 나면 농구하는 청년들을 따라 허름한 딱 코트만한 강당에 함께 갔다.

준비운동도 없고 무조건 혼자 볼을 가지고 숏까지 하는 청년들, 패스도 모르는 청년들, 방어도 하지 않는 청년들, 오직 숏만 할 줄 아는 청년들이었다.

아해! 여긴 혼자만 아는 개인주의였다. 나는 그들의 생활을 배우며 나의 사역의 계획과 방향을 세워 나갔다.

이제는 서로 좋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패스, 상대팀의 공격에 방어할 줄 아는 경기를 즐길 줄 아는 청년들이 되었다.

작년, 3월 바잉주르흐 구역의 교회친선농구대회가 있었는데, 우리교회 남,녀 농구팀이 2등, 3등을 하였다.



몽골의 처음 사역은 늘 외로웠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교회 뒷정리, 바닥 청소하고, 부엌 설거지하고,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10개월이 지나서야 빗자루 들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고 또 인사도 나누게 되었다.

시장을 가든 사람과의 약속을 하든, 늘 “내일~” 하며 늦춘다.

98년 7월, 조그만 나무집 샤르하드 교회를 열어내고 기공예배를 드리고 천막집인 게르를 세워 임시 예배당으로 만들고 건축하는데... 무슨 배짱이 그리 두둑한지... 제대로 기초공사도 안하고 1미터도 안된 구덩이에 시멘트를 붓는데 벽은 자꾸 벌어지고...한 낮엔 덥다며 해가 저야 할 수 있다고 키타 치며 놀고, 부품이 없어 사라갔다면 잠만 자고 있는 저들이 한심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고, 지레 지쳐간 나는 숨넘어갔다.

결국 그들의 습관대로 3개월 걸려 지금의 예배당이 하나님께 드리지게 되었다.

내 인내의 한계는 어디? 가끔씩 시험을 치는 기분이다.

돌이켜 보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함께 나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사로서의 필요한 성품들을 배우게 하셨다.

몽골 청년들은 뛰어난 점이 아주 많다.

뛰어난 언어 능력... 1년 도우미로 일하면 통역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실제로 영어를 4년 배웠는데, 아주 유창한 동시 통역자가 되니 6년을 배우고도 영어로 말 못하는 나는 기가 죽는다.

우리 샤르하드 은혜 교회는 청년들이 많다. 젊다는 말이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도 대부분 청년들이다.

5명의 교회 집사와 주일학교 대표 3명, 전도사와 선교사, 어린이부 교사 12명,

이들은 성가대로, 교사로, 성경공부 리더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섬기고 있다.

아직까지는 몽골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힘은 없다. 그러나 10~20년 후를 생각하면 가슴이 뵈인다.



또한 몽골 특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 때 세상을 정복한 징기스칸의 후손들로, 자긍심이 매우 강한 민족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다. 용기있고 인내심이 강하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독특한 배짱이 있다. 벌써 우리 가운데 선교사 헌신자 2명, 목사 헌신자 2명이 있다.

이 독특한 기질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다면 몽골 교회를 세우고, 중앙아시아와 북한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그 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훈련과 섬김, 변화와 성숙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 중심 생활, 교회중심 생활, 지역봉사 중심의 삶을 살게 하자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사도행전적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우리교회가 있음을 확신한다, 사르하드 은혜 교회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며 복음의 용사로 거듭나 세계를 정복하는 그 날까지 영원하라~ *with*



이 시대를 미혹케 하는 이단

신천지

글 · 이승태 목사

요즘 신천지로 전국의 정통교회와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신천지의 무료 성경신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잠입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단의 악영향은 지난 2007년 5월 8일 MBC PD수첩에서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크게 부각되었으며, 온 국민이 아는 것처럼 자녀들을 미혹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당시 동영상을 기억하는 분들은 딸을 돌려달라고 신천지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그 유혹에 미혹되어 그 깊은 수렁에 빠질지 모를 일이다. 이단 알기는 신천지를 몇 회에 걸쳐서 다루며 온 교회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천지의 원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고 무료 성경신학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천지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증거장막성전을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의 첫 장막이 무너지고 계시록 15장 5절에 새 성전을 증언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 이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상을 이 땅에서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이름만으로는 의미상 좋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교회와 사회에 끼친 영향을 보면 이름과 같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1931년 9월 15일~현재)이다. 신천지 홈페이지에 의하면 그는 17세(1948년)에 침례를 받고 26세(1957년)에 전도관(교주 박태선)과 36세(1967년)때 장막성전(교주 유재열)에 몸담은 바 있고 1970년에 새창조교회(교주 백만봉)에서 12사도 중 1인으로 활동하던 중, 1980년 3월 13일에 ‘천국이 이루어 진다’는 그의 말이 빗나가자 그곳을 나와 신천지교회를 세웠다.

그의 신앙이력을 보면 여러 이단들을 거쳐 오늘의 신천지를 창설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천지를 창설한 날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데 신천지 홈페이지(www.shinchonji.kr)에 의하면 1984년 3월 14일로 되어 있다. 신천지 본부는 처음에 안양시 비산동에 있었지만, 2000년에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벽산빌딩 5층으로 옮겨갔다.

신천지가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크다.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천지’를 치고 검색하면 수많은 자료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신천지 측에서 자신들을 옹호하는 내용이고 교회와 사회에 문제가 되었던 주제들에 대해 변호하는 글들이 많다. 교회의 피해 사례로는 교회의 신앙 웹사이트의 기사 중에 다음과 같은 제목들에서 그 피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with*

- 통합측, 삼성교회 보고서 ‘신천지’ 삭제하고 채택 2009-10-22
- “삼성교회 목사 반대파에 신천지 연루자 많다” 2009-09-13
- 삼성교회 ‘신천지 산출기기’ 작업중? 2008-11-02
- ‘신천지’ 문제로 교단 차원 이단대책 활발 2007-09-10





삼도횡에서 찾은 삶의 아름다움

글 · 김용수 편집장



평안남도 중화에서 대전까지

민주지산 끝자락 삼도봉 아래 위치한 삼도봉중부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과거 탄광촌으로 많은 가구가 거주하던 곳이고, 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던 곳이었으나, 오래 전에 폐교되어 지금은 최준규 집사님 부부의 거처로, 삼도봉 주민들을 위한 예배의 처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십육 년여를 살아오신 분이 최준규 집사님, 최승영 전도사님 이시다. 십육 년 전, 대전중부교회를 섬기시던 두 분이 삶의 뒷자락을 여기에서 풀어 놓으신 까닭은 무엇일까?

누구나에게 질곡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마는 두 부부의 삶은 파란만장의 한 가운데를 걸어오신 삶이라 할 수 있다. 최준규 집사님은 이십 세(1951년)인 한국전쟁 와중에 월남하셨다. 평안남도 중화가 고향이신 집사님은 아버님 대 3분이 장로, 권사로 봉직한 신앙의 가문에서 성장하셨고, 이에 따라 유년과 청년 시절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중심으로 놓고 사셨다. 하지만 공산주의 아래에서 큰 결심을 하게 됐고, 이는 둘째 형님과 고향을 등지고 월남하는 계기가 되었다. 형님은 보병학교를 통하여 소대장으로, 최 집사님은 사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나, 형님은 치열한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하셨다. 결국 남한 땅에서 홀홀단신이 되어 살아오신 삶이 육십년이 되었고, 3년 전 북에 계신 큰형님이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 아픔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을까.

최준규 집사님은 고향 지인을 통하여 춘천소년원, 춘천지법 화천등기소, 왕십리경찰서, 검찰청을 다니며 고단한 삶을 이었고, 33세에 춘천의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조카를 소개하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분이 최승영 전도사님이시다. 평택에서 일가를 이루며 남부럽지 않게 사시던 최승영 전도사님이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지할 곳 없던 최준규 집사님과 결혼하게 된 것은 최 집사님의 신앙의 뿌리를 보셨기 때문이다. 이후 최 집사님은 검찰청 일을 그만두고 전쟁 중이던 베트남의 미국 화학회사에 취직하여 2년여 근무하시고 귀국하였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대전이다. 처음 유성에 정착하여 건축업을 하며 자리를 잡으셨고, 서대전성결교회를 거쳐 55세(1985년 경) 가양동에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대전중부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서, 구하기만 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고의
세월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삶의 질곡과 새로운 정착

월남하신 분들의 삶이 누구나 그러하듯이 고난 중에서도 맨주먹으로 일가를 이루신 집사님 부부의 고단한 삶은 우리 교회에 터를 잡은 지 10년여가 되면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95년 보증을 섰던 것이 잘못되어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내 자식처럼 믿던 사람에게 보증을 섰 것이라 지금도 원망하거나 미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이 일로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제가 잊어야지요.”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남은 것이라고는 12인승 승합차 1대가 전부였다. 두 부부는 기도했다. 새로운 삶을 열어 달라고. 그리고는 남은 돈으로 전도지 15,000장을 만들어 승합차에 싣고 전국을 돌았다. 승합차가 숙식하는 장소였으며 삶의 터전이었다. 길 닿는 대로 아무 마을이나 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마을 일을 거들어 주고,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예배보고 숙식을 했다. 추운 겨울에는 참기 어려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서 구하기만 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고의 세월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전국의 군 소재지 정도는 지금도 네비게이션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여 유람 아닌 유람을 하며 만난 곳이 지금의 삼도봉중부교회이다. 우연히 삼도봉을 지나가며 폐교가 되어 방치된 곳을 보게 되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교육청에서 임대를 얻어 삶의 터전으로, 산골 교회 개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 김주원 목사님과 교회의 후원도 큰 힘이 되었다.

“지금도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아플 때면 중부교회가 생각나고, 이럴 때 중부교회에서 누가 다녀가거나 연락이 오면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중부교회는 저희가 의지하며 힘을 얻는 원천입니다.”

“65세에 삼도봉에 터를 잡으면서 자급자족해야 한다, 철저히 산골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동네 장례에서는 염도 하였고, 이웃에 계신 독거 노인도 돌보며 철저히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한번은 한 겨울에 삼도봉 너머 사시는 할머니(사실은 최 집사님 보다 연세가 어리신 분이)를 부부가 돌보고 밤길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눈이 오는지 삼도봉 정상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내려 왔습니다. 춥고 시렸지만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목소리 큰 집사님과 마음껏 찬송을 불렀습니다. 섬기는 자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폐허가 된 학교를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교회와는 접할 기회도 없던 산골 마을에 교회를 세워 소박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불교와 무속신앙에 젖어 사시던 분들은 처음 교회를 나와서는 예배 도중에도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릴 정도였으나, 이제는 식사 중에도 기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 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예비와 역사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음을 알려 주는 최고의 드라마였다.



인생의 후반부, 그러나 새로운 시작

올해로 삼도봉에 터를 잡은 지 16년 째,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주로 최준규 집사님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많이 찾아 왔다. 2004년 9월에는 뇌출혈로 5일 만에 소생했으며, 2008년 6월에는 방광암 판정을 받고 힘든 수술과 암 투병을 해야 했다. 마취를 완전히 하고 수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의식을 갖은 채로 일부 수술을 진행하였다. 당시 수술로 평생 강제 도뇨(요도에서 소변을 강제로 빼 내는 일)를 해야 하신다. 2009년 12월에는 방광암 수술 후유증으로 탈장이 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부부의 걱정은 교회 전도사, 집사 부부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노심초사 했다. 올해 7월에는 경인방송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름답게 사시는 모습을 ‘어느 촌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2부작으로 엮어 방송하기도 했다. 덕분에 한국화장실문화협회에서 호텔보다 더 좋은 화장실을 꾸며 주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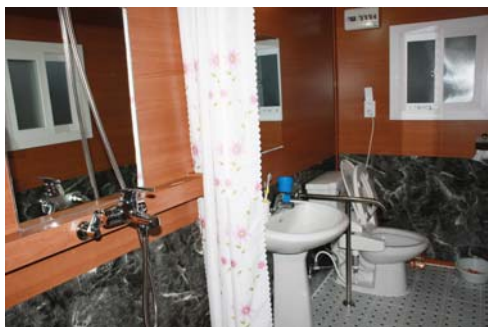
혈혈단신 출발하여 지금은 1남(최성호) 2녀(최은영, 최은숙)의 자녀와 손자 2명, 손녀 4명의 일가를 이룬 두 부부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고백한다.

그냥 말치레가 아니고, 진심이 담긴 신앙고백이며 삶의 고백임을 느낄 수 있다.

“저희는 삼도봉에서 현재의 삶을 이어갈 겁니다. 여기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삶입니다. 교회를 계속 열어야 하고, 이 산골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이 함께 해 주었기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더불어 살아갈 것 입니다.”

신앙과 삶이 느슨해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삼도봉중부교회 두 분을 찾아 산골의 적막한 하늘에 핀 별빛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눈다면 분명 새로운 힘과 도전이 될 것이다.

오늘도 두 부부의 인생 후반부 이야기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다. *with*



중부동산에 핀 이야기 꽃

아버지학교

기도로 준비되어 오던 아버지학교가 10월 30일(토)에 드디어 막을 열었다. 대전지역 여러 교회에서 신청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11월 27일(토)까지 이어지며, 아버지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스텝으로 봉사한다. 가정의 건강은 아버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리모델링 이후 새 예배당에서 열리는 첫 번째 행사인 아버지 학교를 통해 아버지들이 첫 마음을 찾아, 많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하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한다.



탁구대회

실버대학과 탁구 선교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중부 탁구대회가 열렸다. 10월 23일 (토) 오전 10시 중부 교회 지하 믿음의 방에서 열린 탁구 대회의 종목은 단식, 혼합 복식이었으며, 4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풍성하게 치러졌다. 이날 대회에는 평소애 같고 닦은 탁구 실력을 발휘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유쾌한 친교의 시간이었다. 첫 대회가 좋은 발판이 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활력 있는 생활 체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 세계로 교회 탐방

9월 10일(금) 교역자, 중직자, 목자, 예비목자 90여명이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전도세미나에 함께 참석하였다. ‘좋은 이웃 -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10년 만에 100배 성장을 이룬 작은 어촌 교회의 기적 같은 사례를 통해 큰 도전을 받고 돌아왔다. 새벽기도, 실천, 신앙 간증, 새 신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들을 직접 보고, 배우며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었다. “진실로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좋아할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실버대학 2학기 소식

9월 9일(목) 오전 10시, 실버대학 2학기가 시작되었다. 생 일축하와 노래교실로 막을 연 실버대학은 아가페 요양병원 원장님의 특강, 발 맛사지, 효도관광(새만금), 웃음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 2학기 실버대학은 11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 뿐 아니라 이웃의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실버대학은 한글반, 탁구반, 현대 무용반, 노래반, 장기반 등등 유익한 여러 과정이 있다.



아기학교 2학기 소식



생후 12개월~48개월의 유아가 엄마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아기 학교는 2학기 원아모집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정원 20명이 마감되었다.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집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기학교는 엄마와 아기가 아기 학교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 감사한 일도 있으며, 이웃 교회의 교우님들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는 열정으로 먼 거리를 마다않고 참여하여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 아기학교는 1, 2학기로 나누어 매주 목요일 운영되는데, 2학

기는 11월 25일까지 이어지며 가베, 뮤직캠프, 인형극, 나들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유익과 즐거움을 더해가고 있다.

GMS 20년 공로상

지난 9월 2일, 총회 세계선교회(GMS : Global Mission Society) 정기총회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정배 선교사님이 20년 선교사역 공로표창을 각각 수상하였다. 20년 동안 베테랑 선교사로서, 변함없이 선교사역에 매진해 오신 김정배 선교사님과 선교사를 파송한 후 20년 동안 변함없이 선교사님을 후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상을 받게 되어 한없이 자랑스런 날이었다. 우리 교회는 태국, 몽골, 싱가포르, 중국 등에 단독선교사 파송은 물론, 우리 교회가 배출한 여러 선교사님들을 협력으로 후원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효도 관광

10월 21일(목)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새만금으로 효도 관광을 다녀왔다. 오랜 시간의 여행이라 피곤하고 멀미를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33km에 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방조제를 보며 놀라움에 새로운 경험을 했으며, 탁 트인 바다와 함께 마음 열고 기쁨과 행복을 같이 하는 친교의 시간이 되었다. 효도관광은 교우와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매년 실시되고 있다.



새가족 환영회

9월 16일(목)에 새가족 환영회가 열렸다. 5월~9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 뿐 아니라 바나바, 전도자, 목장, 남녀 전도 회장님들이 함께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상용 목사님은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 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 말씀하시며, 축복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삶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교회’ 중부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누게 된 새가족 모든 분들의 환한 미소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52주년 기념 행사

9월 12일, 교회 리모델링으로 주일 2부, 3부 예배를 교회 인근의 가야중학교 대강당을 활용하여 드리던 중에,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았다. 예배 처소를 옮겨 갖은 행사였지만, 지난 52년 동안 변함없이 중부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본당 입당예배

10월 17일, 본당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목회 비전을 담은 아름다운 본당을 설계하고 작업한 미담 건축 관계자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신 여러 성도님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다. 오후 예배는 입당축하 찬양축제가 열렸다. 어린이 경배와 찬양, 예사랑 중창단, 혼성 4중창, 드림워십 찬무단, 연합 성가대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교우들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가정을 말한다

균형 잡힌 판단

글 · 김혜경 사모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판단은 대체로 부드럽고 합리적이
게 균형이 잡혀 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일수록 흑백논리에 사
로잡히기 쉬운데, 가장 가까운 부부사이에서 흔히 그러하다. 그
러나 부부가 대화기술을 개선하면 눈에 띄게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자
신이 바라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서
로 도우려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룬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게 된다. 이런 기본 기술을 획득하게 되면, 부부는 상대방에게 더
욱 민감하게 되고, 사려 깊어지고, 책임감이 높아지며, 합리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서로에게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부가 효과적으로 변화하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사려 깊고, 친절하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요구를 깨닫고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 주면, 이것이 부부관계에 큰 힘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상대방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물론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화의 기술을 적용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화기술의 발달은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즐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첫 단계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화방법만 배운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가슴깊이 묻어있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저 마누라는 자기 자신 밖에 몰라. 내 생각은 눈썹만큼도 하지 않아.”라든지, “도대체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아내가 제 시간에 오면 책임감이 있고,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무책임하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은 ‘선 아니면 악’, ‘좋은 아니면 나쁜’이라는 개인적인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제 때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어.”라고 결론을 내린다.

부부가 효과적으로 변화하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사려 깊고, 친절하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요구를 깨닫고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 주면, 이것이 부부관계에 큰 힘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상대방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사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이나 요구를 배우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배우자가 자신의 요구를 알아서 해 주기를 더 바라고 때문이다. 아내의 늦은 귀가 때문에 염려하는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올 때는 연락을 해야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아내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내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주시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남편을 위해 아내가 해 준 행동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 아내는 그런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칭찬과 격려는 누구에게나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이 반복되면,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다.

부부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용기 있게 시도해 본다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상담가가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부부를 위해서, 그들에게 결혼초기에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었을 때 좋았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남편과 무엇이든 함께 할 때가 좋았다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와 폭넓게 대화를 나눌 때가 좋았다고 말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훨씬 좋아졌다고 했다. 아내는 지난주에 모처럼 남편과 오랜 산책을 하며 즐겼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해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산책을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의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었다. 남편은 기본 좋게 회사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아내는 남편의 깊은 생각과 처신에 대해서 감탄을 했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즐겼다. 남편은 아내가 감탄하자 더욱 기분이 좋았다.

문제가 있는 부부들은 자신들의 부부관계에서 좋은 점을 보지 못한다. 서로에게 좋아하지 않는 점만 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간에 좋은 점이나 좋아할 수 있는 면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부부관계로 발전시키려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내가 원하는 요구나 바라는 정확하고 긍정적인 대화로 표현함으로써 서로에게 배려를 주고받으며, 관심을 갖게 되고, 원하는 바를 도와주려고 노력함으로써 부부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

오늘 밤 남편과 혹은 아내와 근사한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갖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건네 보자. “당신과 오늘 필그림 하우스에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당신이 제 제안에 응해 주면 정말 기쁠 거예요.”라고, 당신의 진심어린 요청에 상대방은 분명히 응해줄 것이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당신이 느끼는 행복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with*

— 아론 백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중에서 —

나의 자라는 “전도”이고 싶습니다.

글 · 송경호 집사



제가 전도하게 된 동기는 1986년 가을 4000명 전도초청잔치 집회에 손창식 목사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에서 몇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손뺨가 가늘어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래 고통받다가 죽게 되도록 손목에 못을 박았으며, 십자가에 옷을 벗겨벗기고서 못을 박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마나 창피와 수치와 모욕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예수님은 많은 고통과 창피를 당하시면서 죽으셨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라는 전도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셨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왜 지금까지 들어주지 못했는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나가서 전도를 시켜보았더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는데 그 이유가 창피해서 못하고 있더라. 조금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그 예수님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더니 창피하고 얼굴이 팔려서 전하지 못하더라. 그러시면서 남에게 전하기도 창피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거짓말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전하기도 창피한 예수님에게 손뺨을 치고 손을 들어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가증스러운 일이 아닌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을 구하고 치유를 원하며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겠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병원만 있어도 소문을 내며,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소문을 내고 자랑하면서, 정말로 내가 믿을 분이고, 찬양 할 분이고, 내 문제를 해결 해 줄 분이라면 “여기 이런 분이 있어요!” 라고 자랑하고 다녀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전하기를 창피해 하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른 볼일이 있어 다니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한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자동차에 달린 십자가도 어떤 때는 떼고 다녔는데...’ 하면서 머리를 숙여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도 지금부터 전도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항상 머릿속에 전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를 꾸준히 하고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보니 얼굴이 두꺼워지고 뺨 뻘스러워지고, 철판이 깔리다보니 이제는 웬만큼 할 수 있었고, 많이 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보다 전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하고 있습니다. *with*

목요전도대

글 · 조숙희 전도사

그 동안 목요전도대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 전도의 소원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수년동안 꾸준히 열정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의 사명을 지키는 전도대 여러분! 천국의 스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일을 온 성도들과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위원장님과 팀장님의 많은 관심아래 모든 임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온 힘을 다해 충성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올해는 회보를 통해 전도하게 되어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관공서나 동사무소, 사업장등에서 교회가 더 좋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목요전도대는 교회 전체의 5%가 되지 않지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오신다면 교회가 더 젊어지지 않을까요! 주님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오셔서 영혼을 살립니다. 목요전도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화이팅! *with*

나가자! 전도자! 모셔오자! 일만명! 줄줄루야! 아멘!



멀리 멀리 갔어도 중부교회는 나의 모태

글 · 송호욱 목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인 미국의 달러화는 국가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머물다 보니 미국 화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미국 화폐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건물들 그리고 미국을 상징할만한 문양을 도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화폐를 살펴보다 보니 모든 화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문구가 있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 동전부터 지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국의 화폐에 있음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이 문구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는지 자료를 찾다가 은혜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하던 1861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 없이 강했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안전했던 나라가 없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미국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당시 사용 되던 화폐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기로 결정하고, 1864년 2센트 동전에 “IN GOD WE TRUST”라는 문구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작업은 점차로 모든 화폐로 확대 되어 마침내 모든 미국의 화폐에 이 문구를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한 선조들의 뿌리깊은 신앙 유산이 오늘의 미국이 있도록 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수많은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말씀, 신앙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흘린 눈물, 그리고 외부의 위협에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부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그리스도께 인도 하는데 힘을 다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은 책으로 출간되어도 몇 권이나 될 것입니다. '중부교회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 '중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 '중부교회를 통해 참된 기쁨을 맛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 교회의 긴 역사만큼이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참으로 풍성하였습니다.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이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 주며 귀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100여 년 전 조부모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이후 부모님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 받고, 주님의 귀한 몸 된 중부교회에서 어려서부터 훌륭한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기에, 이곳 미국에 있으면서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역과 공부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허가 받아 주기적으로 탈북자들과 어려운 중국 분들에게 기부 받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푸드뱅크 사역과 노인 아파트와 양로원에 계시는 여러 나라의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함께 기도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세세토록 물려줄 수 있도록 실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나라, 교회, 가정을 볼드시고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후대에 넘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중부교회,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이곳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6) *with*



기독교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와 미국 교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송호욱 목사는 충남대, 충신대학원, 상해 교통대 등에서 수학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보냈으며, 송은규 장로님과 임명숙 권사의 신앙가정에서 성장하여, 손수희 사모와 장남 세한, 차남 세중이 있다.

나누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글 · 두은경 사모



“물질이 없으면 시간으로, 밥이 없으면 라면으로, 위로가 필요하면 따뜻한 손과 가슴으로 같이 올려주고 같이 웃어주는 것 또한 나눔이다.”

멋지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올해도 어김없이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가을이다.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다가오고 그 진실한 아름다움에 우린 매번 감격한다.

이번 「함께」주제가 “나눔, 열매” 라는 주제로 글을 요청해 왔을 때 나눔과 열매는 따로 따로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나눔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연애10년, 결혼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같이 나누고 느꼈던 일들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

결론적으로 나눔은 특정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나눔의 삶이 될 수 있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말하고 싶다.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 어떻게 사모가 됐느냐고... 그리고 한 남자를 사랑했더니 나도 모르게 사모가 되어있었다고... 답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이다. 하지만 사모의 길이 원지 몰랐기에 이 길을 용감히 걸어왔던 것 같다. 그러기에 시행착오도 많을 수밖에 없었고 포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성격 급한 나로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바로 되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조리며 정성을 다해 살피야하듯이, 나의 삶 역시 매 순간 가슴조려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남편과 함께 하면서 남편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성에서 나오는 진실함과 나누는 삶이었다.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함에도 맑은 사역지에서 항상 주머니를 열었다. “목사가 더 베풀어야 한다.”면서 말이다. 참 좋은 말이지만 살림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가정이나 잘 돌보지”라며 마음속으로 불평했다. 그러나 어느새 모을 것이 없던 나로서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편해졌다. 나누는 기쁨이 원지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엄청난 것을, 많은 돈을 기부한다는 것이 아니다. 물질이 없으면 시간으로, 밥이 없으면 라면으로, 위로가 필요하면 따뜻한 손과 가슴으로 같이 올려주고 같이 웃어주는 것 또한 나눔이다. 사람에게 진실해야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진심을 전하고 나누었을 때 변화가 되는 것을 발견했고 어느새 열매가 되어,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남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풀지 않고는 사랑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이 가을 진심으로 나눔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말이다. *with*

두은경 사모 |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세 아이(시연, 시은, 시우)의 ‘엄마’라는 말이 너무 행복하다는 두은경 사모는 군산개복교회 더불어찬양선교단에서 첫 만남을 가진 후, 10여 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모님은 변두성 목사님의 사역을 기도로 조용히 내조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신다.



세속 문화속에서의 십대 청소년의 가치관

글 · 하재호 목사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회 대표)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부요함 보다는 보이는 세계의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는 인간적인 것, 쾌락적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교회조차도 언제부터인가 보이는 세계의 가치에 더 치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상은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속주의는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그들을 타락시키고 진리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속주의는 진리 확장 운동에 매우 큰 장애물이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것은 극복 될 수 있지만 대체로 물질 중심의 문화, 인간중심의 문화는 진리를 수용하고 퍼뜨리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근래에 와서 한국교회 청소년들 다수가 이 세속주의 문화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상실하고 있으며 세속적 가치에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소위 예술이란 명분으로 표현되고 있는 대중매체 대부분이 선정적인, 혹은 외설적인 장면을 적나라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영원한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 꿈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향락과 퇴폐를 조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토양에서는 청소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상당한 방해를 받게 되는데 교회 교육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한국교회 교육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절대 가치에 대한 이해, 실천력 부족, 그리고 유해문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개선을 위한 행동력의 부족이다.

다른 한 가지는 교육을 시행하는 교사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열정부족과 결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 이유는 세속가치의 허구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대처하지 못하는데 있으며, 크리스천들이 절대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세상 가치를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과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체험을 갖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속가치를 하나님 중심의 절대가치로 개혁하는데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개념에서 이해 될 수 있으며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는 그 시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갖는 가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가르침이다. 시대마다 정신이 달랐고 가치가 다르게 변화되어 왔다. 이것은 세상 가치의 가변성이다. 그러나 진리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됨을 위하여 흠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신 이유는 인간은 물질로써 만든 만족 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참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없어지고 상대적 가치, 즉 비교함으로써 자기 행복과 불행을 평가하는 것을 척도로 삼고 있다.

절대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피조물인 인간의 성공이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 보배인 주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상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위하여 먼저 절대가치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얻는 부요함을 체험하며, 세상 가치에 짓눌리지 말고 담대하게 청소년들에게 절대가치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한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회가 복음 확장에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청소년들이 외적인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생기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사역을 위해서 먼저 가르치는 사람들의 중심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맞보아 알고 날마다 체험적 신앙으로 절대 가치를 심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세속가치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다운 풍요와 가치를 외쳐야 할 중요한 기회임을 잊어선 안된다.

주바라기는 대전중부권지역 63개 고등학교에 조직된 초교파적 기독교학생회 총연합회로서 89년에 설립되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주최하는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비전캠프'가 해를 거듭할 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1996년도에 처음 시작한 주바라기 캠프는 현재 전국 청소년, 청년·대학생들이 참석하는 최대 집회로 자리매김했다. *with*



하재호 목사님은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현재 주사랑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다. 청소년 사역에 남다른 비전과 열정을 갖고 계신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회의 대표이시기도 하다. 우리교회 고등부를 맡아 사역하실 때 '하도사님'으로 불리셨다는 하재호 목사님을 통해, 고등부 시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중부의 지체들이 많이 있다.

독자후기

“함께”지, 이러~쿵 저러~쿵

그 느낌은.

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게 표현 될 수 있을까? 유수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근이라는 잠깐의 쉬음을 만나 읽어갈 쯤, 전 이미 대전중부장로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상일 형제-청년회)

대전중부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저런 변화의 소문들을 듣고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회지까지 발간하다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부교회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 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명-이웃 교회 집사님)



우리교회에서도가 회지가 발간이 되다니! 처음 만든 것인데 꽤 근사합니다. 근씨가 조금 많은 듯하지만, ㅎㅎ.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이 가장 화려하고 갖가지의 색을 자랑하는 이 가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우리의 사색에 잠깐의 쉬음을 주는 것도 좋을 듯.
(손용희 집사-2교구 가양/2목장)

근씨가 너무 많아 읽기도 전에 지루한 느낌? 지역주민과 함께 읽는 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내용이 대부분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여서 아쉽네요.
(장문숙-지역주민)

2011년을 위한 제직 세미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2011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기, 아름다운 출발을 위한
제직세미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 박성규 목사(부전교회 담임), 조상용 목사(대전중부교회 담임)

일시 : 12월 6일(월)~12월 8일(수)

장소 : 대전중부교회 본당

대상 : 대전중부교회 제직



인간가사 복음성회



교회 리모델링을 통한 비전과 은총 만나기

- 일시: 2010년 11월 22일(월)~24일(수)
- 새벽 성회: 오전 5시
- 저녁 성회: 오후 7시 30분
- 강사: 김관선 목사(서울 산정현교회)

내솜씨, 우리가족



그림 · 김서윤(유치부)



웃는 모습이 사랑스런 서윤이는 김성무 집사(베드로목장) 임선욱 집사의 아들이다. 또한 김규석 장로님과 장영애 권사님의 손주이기도 하며 유치부에 소속되어있다. 김성무 집사님은 초등부 부장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사랑가득함으로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임선욱 집사님 또한 초등부 선생님이 되받침하고 있는 은혜 가득한 가정이다. 든든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리에서, 힘써 봉사하는 부모의 그 모습 그대로 서윤이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향하심이 보인다. *with*



Invitation

“새 생명의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과 손잡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렵거나 기쁠 때, 저의 손을 잡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아 주신 손으로 지금은 이웃과 함께 합니다.

이제, 당신과 손잡고 싶습니다.

제가 어렵거나 기쁠 때, 당신이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저도 당신 곁에서 손잡아 드리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당신과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일시 _ 2010년 11월 28일 (주일) 오후 7시 30분

장소 _ 대전중부교회